



## 사회적 자본 인식형성에 대한 종단연구\*

- 경기도 및 강원도 4개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

Longitudinal Study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wareness in Community-Based Tourism Development: Focused on Four Rural Communities in Gangwon and Gyeonggi Provinces

박 용 순\*\* · 이 상 훈\*\*\*

Park, Yong-Soon · Lee, Sang-Hoon

**요약** : 본 연구는 지역사회 관광개발의 일환으로 농촌관광을 추진 중인 4개 농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의 인식형성 변화추이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6개월 단위로 총 4회에 걸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ANOVA 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4개 요인의 변화추이를 비교하고 있다.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은 연구시작 시점에 비해 연구종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승추이 또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4개요인 중 제도적 구조에 대한 인식은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합적 네트워크의 경우 다른 3개의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시사점으로는 4개의 사회적 자본 요인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인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요인별 인식수준 또한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농촌관광과 같은 지역사회 관광개발에서 지역사회의 내생적 발전을 위해 사회적 자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 사회적 자본, 제도적 구조, 연합적 네트워크, 사회적 신뢰, 관계적 거버넌스, 주민역량강화

**ABSTRACT** : This study explores the changes of awareness of social capital among the residents of four rural communities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temporal flow. A survey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four times over two years at intervals of every six months. This study conducted ANOVA analysis with residents' questionnaires and compared changes in the four latent factors of social capital. As a result, community residents' perceptions of social capital rose steadily from the start until the end of the study,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upward trend would decrease over time. In addition, the perception of institutional structural factors of social capital was relatively higher than at the beginning of the study, and the associative network factor had a relatively low perception compared to the other three factors of social capital. The major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confirming that the perception of community residents was continuously rising for the four social capital factors, and that the recognition level of the factors was also different in each period.

**Key words** : Social capital, Institutional framework, Associational network, Relational governance, Social trust, Strengthening of residents abilities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A8019372)

\*\* (주저자) 경기대학교 관광융합연구소 연구교수. e-mail: yspark0722@kgu.ac.kr

\*\*\* (교신저자) 경기대학교 관광융합연구소 연구교수. e-mail: shoong@kgu.ac.kr

## I. 서 론

주민참여형 혹은 주민주도형 관광개발로 대표되는 지역사회 관광개발(community based tourism development)은 기존의 농산어촌 관광개발을 벗어나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역사회 관광은 지역주민의 필요와 열망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주체로서 지역주민의 권한을 강화시키는(박용순, 2014a; 박용순, 2014b; 박용순·고동완, 2018; 박용순·제상호, 2015; Friedmann, 1992; Mitchell & Reid, 200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한 유형으로, 대량관광(mass tourism)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환경 파괴와 지역문화와 지역의 정체성 소멸, 관광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이익의 소외 등의 폐해와 악영향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대안관광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김균목·고동완, 2012; Okazaki, 2008).

이처럼 지역사회 관광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력 등이 어우러져 자체적인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관광형태로(류시영·김혜영, 2012; 윤유식, 2009; Stone & Stone, 2011), 지역사회 구성원인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와 협력, 그들의 만족과 지지를 담보할 수 있는가가 지역사회 관광개발의 핵심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다(박용순, 2014a; 박용순, 2014b; 박용순·고동완, 2018; 박용순·제상호, 2015; 손은호·박덕병, 2009; 심원섭, 2017; 윤유식, 2009; 윤주·최승담, 2013; 한승훈·신동주, 2017; Hwang & Stewart, 2017; Margules & Pressey, 2000; Mitchell & Reid, 2001; Sharpley & Telfer, 2002).

즉, 지역사회 관광개발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관광개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지역사회 관광개발은 지역주민이 참여의 주체가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가시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관광개발이 추진되어 왔던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 관광개발에서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서의 지역주민의 역할은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무관심과 비협조, 심지어 지역사회 관광개발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에 관광개발이 추진될 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 관광개발은 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결과를 창출하지 못할 것이다(Lea, 2006; Stone & Stone, 2011). 다행히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관광개발의 핵심이 지역주민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에 기반한 관광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관광개발에서 주민역량강화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강화, 암묵적 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곧 지역사회 구성원 간에 형성된 공동체적인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지역사회 구성원 간에 형성된 사회적 신뢰, 공동체적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을 특징으로 하고(박용순, 2014b; 박용순·고동완, 2018; Putnam, Leonardi & Nanetti, 1994) 있는 사회적 자본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관광개발이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 형성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관광개발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자본을 다룬 연구는 이미 여러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어 왔으며(박용순, 2014b; 박용순·고동완, 2018; 박용순·제상호, 2015; 윤주·최승담, 2013; Hwang & Stewart, 2017; Sharpley & Telfer, 2002), 선행연구 결과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자본 형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는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횡단적인 측면에서 파편적으로 접근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지역사회 관광개발에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정도 즉,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인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농촌마을에서 변화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도와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인의 변화 추이를 비교하여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지역사회 관광개발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량형성 정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지역사회 관광개발에 대한 고찰

지역사회 관광(community based tourism: CBT)은 대량관광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환경파괴, 지역문화 및 지역의 정체성 소멸, 관광개발의 이익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소외 등의 폐해와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등장한 대안관광의 한 형태로(김균목·고동완, 2012; Goodwin & Santilli, 2009; Okazaki, 2008),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자연경관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력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역량을 결집하여(류시영·김혜영, 2012; 윤유식, 2009; Stone & Stone, 2011) 지역사회 자체의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관광은 특히 농촌지역과 같이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서 최고의 대안적 개발모델(Wearing, Wearing & McDonald, 2010)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사회 관광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투영할 수 있는 환경적, 경제적 및 관계적 측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관광개발의 긍정·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관광개발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사회 관광은 농촌관광개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촌이라는 공간이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동질성을 바탕으로 구성원 간에 공유된 의식을 형성하고, 관계에 기반한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관광을 다루고 있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Goodwin and Santilli (2009)는 투자자(채원조달자), 환경보호론자, 개발자 등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관광이 성공하기 위한 CBT 이니셔티브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과 권한부여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적 접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의 70%가 사회적 자본과 권한부여 등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적 중요성은 40%만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동체 프로젝트에서는 궁극적

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의 팔라완(Palawan) 공동체를 대상으로 Arnstein(1969)과 Selin and Chavez (1995)의 지역사회 관광모델을 적용한 Okazaki (2008)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관광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권한의 재분배, 그리고 공동된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의존성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 관광개발에서는 지역주민과 행정, 관광객 및 지역사회 관광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동반자 관계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동티모르에서 지역사회 관광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정부, NGO, 교육, 마을리더, 관광사업, 관광객, CBT 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 Tolkach and King (2015)의 연구를 보면, Schumpeter(1973)의 '작은 것은 아름답다'라는 주장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지역사회 관광은 지역산업과 유대관계가 강한 소규모 기업의 특징과 인간중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관광개발은 지역사회의 참여와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관광개발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신뢰, 평등 및 투명성을 토대로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Stone and Stone(2011)은 보츠와나 중부에 위치한 3개의 마을로 구성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뷰 한 결과에 의하면, 지역사회 관광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참여 극대화과 함께 리더그룹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와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개입이 지역사회 관광개발의 핵심이며, 구성원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거

나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전달될 경우에는 커뮤니티의 결속은 촉진되지 않으며, 구성원은 지역사회 관광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경제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내생적 관광발전을 연구한 심원섭(2017)의 연구를 보면, 지역사회의 내생적 관광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발적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사회 관광의 일환으로 농촌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2개 마을의 리더그룹을 대상으로 연결망 분석을 시도한 박용순·고동완(2018)의 연구에서는 농촌관광개발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 간의 연결 관계를 통해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키워드를 추출하고 있다. 그의 연구결과 농촌관광개발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 형성과 의사결정구조의 합리적 운영, 그리고 커뮤니티 리더의 주체적인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커뮤니티 리더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역사회 관광을 다루고 있는 국내·외 선행연구의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관광개발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와 권한부여, 그리고 구성원 간의 협력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 구성원을 배제한 관광개발은 성공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무관심으로 인해 실패한 관광개발이 될 것이다(Stone & Stone, 2011).

## 2. 지역사회 관광개발에서 사회적 자본

Bourdieu(1986)와 Coleman(1988; 1990), Putnam(1993; 1995)에 의해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체계가 확립된 이후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는 정치, 경제, 경영,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충분히 연구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신뢰(trust), 규범(norms), 네트워크(network)를 바탕으로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개념으로(고동완, 2009; 박용순, 2014b; 박용순·고동완, 2018; 윤유식, 2009; Liu, Qu, Huang, Chen, Yue, Zhao & Liang, 2014; Putnam *et al.*, 1994), 개인 또는 집단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사회 관계망에 기초하고 있으며(Fukuyama, 1995; Putnam *et al.*, 1994), 개인이 집단 내에서 형성하는 사회구조관계 보다는 지역 사회라는 집단적 측면에서 구성원 간에 형성된 다차원적인 사회구조관계를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구성원 간에 보편적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체적인 유대감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 관광개발의 성과와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국내 2개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과 행동을 다루고 있는 Liu *et al.*(2014)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주민참여는 인지적 및 구조적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그들의 행동에는 인지적 사회적 자본만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들의 공유된 집단적 가치, 태도, 신념이 지역사회의 규범과 규칙보다 자신의 행동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박용순·고동완, 2018). Hwang and Stewart(2017)는 한국의 2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집단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커뮤니티 구성원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 정도가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

소라고 언급하면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집단행동을 강화시켜 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곧 지역사회의 정체성 유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지역사회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한 커뮤니티를 연구한 Okazaki(2008)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관광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권한의 재분배 등 구성원의 사회적 자본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자본 형성이 지역사회 관광개발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버지니아 지역관광 오피니언 리더그룹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다른 형태의 자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한 McGehee, Lee, O'Bannon and Perdue(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자원과 문화적 자원 등과 강한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 정치(행정)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 등과는 약한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원 간의 협력과 연대의식 등 공동체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지역사회 관광개발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 중에서 농촌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10개 마을의 사회적 자본과 주민지각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박용순·제상호(201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외부와의 네트워크 형성, 공동체 규범의 인식과 공유 등과 같은 연합적 네트워크와 구성원 간의 신뢰, 협력 등과 같은 사회적 신뢰가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과 태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요인

은 지역별, 인구통계학적으로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역사회 관광개발에서 사회적 자본을 다루고 있는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자 마다 다소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자본 형성이 지역사회 관광개발에서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선행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설문지 설계

본 연구는 농촌관광을 통해 지역사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 커뮤니티 구성원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형성 정도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4개 농촌마을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설문지 설계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사회적 자본의 구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Liu(2017)는 사회적 자본을 단일차원으로 구성한(협력, 정보공유, 상호작용) 반면에 장한별·황두현·지상현(2017), Kim, Lee and Bonn(2016)과 Zhou, Chan and Song(2017)은 결속형과 연계형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고동완(2009), 박용순·고동완(2010; 2018), Liu *et al.*(2014), Harpham, Grant and Thomas(2002)는 구조적 및 인지적 사회적 자본의 2개 영역, 4개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3개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연구도 있는데, Rodriguez-

Giron and Vanneste(2018)는 네트워크, 규범과 신뢰, 집단행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윤주·최승담(2013)은 구조적, 관계적, 가치 공유적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되어 논의되어 오고 있으나, 관광학 분야에서는 2000년대 이후 2개 영역(인지적 및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진행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2개 영역(구조적 사회적 자본, 인지적 사회적 자본), 4개 차원(제도적 구조, 연합적 네트워크, 관계적 거버넌스, 사회적 신뢰)으로 구분하고 있는 선행연구(Grootaert & Van Bastelaer, 2001; Park & Feiock, 2007)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한 Payne, Moore, Griffis and Autry(2011)와 Liu *et al.*(2014)의 설문항목을 추가하여 한국의 농촌마을 상황에 맞도록 설문항목을 재구성한 박용순·계상호(2015)의 설문항목을 사용하고 있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항목이다. 설문지 구성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주민교육 횟수 등의 인구통계학적 내용을 총 21개의 항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 2. 연구대상지 선정

본 연구를 위한 대상지 선정은 첫째, 농촌관광 또는 농촌지역개발 사업을 과거에 추진한 경험이 없고, 둘째, 현재 농촌지역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마을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농촌관광개발을 통한 사회적 자본 인식 변화는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前)이나 또는 사업 초창기에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 인식을

〈표 1〉 설문지 문항구성

구분	주요 설문 항목	출처
구조적 사회적 자본	제도적 구조 1-1. 마을조직은 잘 구성되어 있음 1-2. 마을조직은 잘 운영되고 있음 1-3. 자체적인 마을규범에 의해 잘 운영되고 있음 1-4. 정부의 정책이나 지침을 잘 따르고 있음	박용순·제상호, 2015; Grootaert & Van Bastelaer, 2001; Liu <i>et al.</i> , 2014;
	연합적 네트워크 1-5. 외부 자매결연 기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1-6. 지속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음 1-7. 주민들은 마을규범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음 1-8. 주민들은 농촌관광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	
인지적 사회적 자본	관계적 거버넌스 2-1. 마을조직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2-2. 마을의 농촌관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2-3. 마을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2-4. 마을정관을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음	Park & Feiock, 2007; Payne <i>et al.</i> , 2011  5점 리커트 척도
	사회적 신뢰 2-5. 주민들은 농촌관광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 2-6. 주민 간에는 서로 도와주려는 문화가 있음 2-7. 주민 개인 간에는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음 2-8. 마을조직 운영에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음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주민교육 횟수	명목, 비율척도

측정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3년 동안 일정한 간격을 두고 측정해야 그 변화상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에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마을만들기 사업<sup>1)</sup>에 선정된 2개 시도(경기도, 강원도)의 농촌마을 중에서 본 연구자와 마을 리더(이장) 간에 직접 전화로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고, 참여의사를 밝힌 10개 마을을 최초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후 연구 진행과정에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기한 2개 마을과 마을리더가 연구중단을 통보하여 중도에 탈락한 4개 마을을 제외한 최종적으로 4개 마을을 최종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4개 농촌마을의 경우 경기도에 위치한 마을이 1개이고, 나머지 3개는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다.

선정된 4개 마을을 살펴보면, A 마을은 수도권(동서울톨게이트 기준)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마을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마을의 경우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과 계곡을 정비하고, 마을을 방문한 도시민을 대상으로 마을의 농·특산물 판매 및 체험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다. B 마을은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딸기농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마을주민 중 일부 주민은 개인적으로 딸기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마을의 경우 마을에 위치한 저수지와 그 일대를 생태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기존의 딸기농사와 연계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관광을 추진 중에 있다. C 마을의 경우 수도권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마을 내 폐교를 활용하여 초·중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중의 하나로,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마을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정부지원 마을 관련 사업을 통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농촌관광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전체가 농촌관광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을이다. D 마을은 동서울톨게이트 기준 3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습지를 이용하여 연꽃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마을주민이 자체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는 8회째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는 마을로 주민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농촌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문자료 수집은 4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6개월 단위로 총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2014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마을을 2015년부터 설문조사가 실시된 이유로는 2014년도에는 선정여부만 확정되고 2015년도 상반기에는 마을 기본계획수립 등 준비기간에 해당되고, 실질적인 마을사업의 추진은 하반기에 본격적인 진행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자료수집 역시 마을사업 궤를 같이하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는 농촌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4개 농촌마을에 대해서 연구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종단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종단연구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초기 시점에서의 인식 정도와 일정시간이 경과한 이후의 인식의 변화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4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료의 수집은 2015년 8월에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약 6개월의 간격을 두고서 2017년 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수집하였다. <표 2>는 마을별로 설문조사 일시와 수집된 설문부수이다.

자료수집은 사전에 교육된 조사원이 마을회의에 참석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응답

방식을 통해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고령의 마을주민은 조사원이 설문문항과 내용을 읽어주고 작성자 본인이 직접 설문지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을별 설문조사는 마을회의에 참석한 주민으로 한정하여 실시하였는데, 이렇게 설문표본을 한정한 이유로는 주민등록부의 마을주민(주소만 옮겨놓은 주민), 거동이 불편한 주민과 마을의 지역개발사업에 관심이 없는 주민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마을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표본의 대표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즉, 지역개발사업과 같이 마을의 주요 대소사를 논의할 때 마을회의를 개최하여 참석한 주민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마을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평소 마을사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문지 작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별 자료수집은 최저 19부에서 최고 47부가 수집되었는데, 회당 평균 32부가 마을별로 수집되었다. 마을별로 수집된 총 자료 수는 A 마을이 119부로 가장 적게 조사되었고, D 마을이 138부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는데, 이렇게 마을별 설문조사 부수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로는 실질적으로 마을에 거주하는 인구의 차이와 마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의 참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A 마을의 경우 가장 많이 조사된 D 마을에 비해 60% 수준의 마을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마을회의에 참석하는 인원도 전체 마을주민의 50%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평균적으로 적은부수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총 4회까지 진행된 자료수집 결과 1개 마을 평균 128부, 4개 마을 총 511부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설문자료의 분석은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고,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ver. 24.0)을 이용하여 측정변수의 신뢰도 분석과 집단 간 차이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표 2〉 설문조사 자료수집

구분		A마을	B마을	C마을	D마을	합계 (설문부수)
1차	조사일	2015.09.17	2015.09.22	2015.09.08	2015.09.02	
	설문부수	37	38	37	26	138
2차	조사일	2016.02.24	2016.01.30	2016.02.15	2016.02.23	
	설문부수	29	37	30	47	143
3차	조사일	2016.08.16	2016.08.18	2016.09.09	2016.09.08	
	설문부수	25	19	34	32	110
4차	조사일	2017.02.16	2017.01.19	2017.02.04	2017.02.15	
	설문부수	28	32	27	33	120
합계(설문부수)		119	126	128	138	511

#### IV. 분석결과

#####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표 3〉은 전체 511부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다. 마을별로 남녀 간의 구성 비율을 보면 D 마을을 제외하고 3개 마을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에서는 4개 마을 공히 60세 이상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B 마을을 제외한 3개 마을(A, C, D마을)의 경우 70세 이상 응답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보다는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 상대적으로 고령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학력과 관련하여 4개 마을 모두 초등학교 졸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B 마을(39.2%)의 경우 상대적으로 3개 마을(공히 45% 이상)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의 경우 농업, 어업, 축산업 등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4개 마을 공히 60% 이상으로 나

타나고 있지만, B 마을(62.9%)과 C 마을(61.9%)의 경우 다른 2개 마을(A, C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수도권(동서울톨게이트 기준)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어 귀농귀촌 주민이 다소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조사기간(2015년 8월~2017년 2월) 동안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을주민이 받은 교육 횟수를 살펴보면, 3개 마을(A, B, D 마을)은 3-5회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C 마을의 경우 6-10회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3개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에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의 경우 A 마을(10.9%)을 제외하고는 3개 마을 공히 10% 이내로 지역개발사업(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이 교육 혜택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대체적으로 남녀 비율이 비슷하고, 60대, 70대 인구비율이 높다는 점과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 높고, 1차 산업 중심의 직업을 가졌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우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A마을		B마을		C마을		D마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성	57	47.9	55	43.7	57	44.9	76	55.1
	여성	62	52.1	71	56.3	70	55.1	62	44.9
	계	119	100.0	126	100.0	127	100.0	138	100.0
나이	50이하	4	3.5	5	4.0	3	2.4	2	1.5
	50-60	14	12.2	29	23.2	9	7.3	25	18.7
	60-70	41	35.7	41	32.8	47	37.9	27	20.1
	70이상	56	48.7	50	40.0	65	52.4	80	59.7
	계	115	100.0	125	100.0	124	100.0	134	10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64	55.2	49	39.2	55	45.5	62	46.3
	중학교 졸업	14	12.1	32	25.6	15	12.4	36	26.9
	고등학교 졸업	13	11.2	30	24.0	21	17.4	14	10.4
	전문대 졸업 이상	25	21.6	14	11.2	8	24.8	22	16.4
	전체	116	100.0	125	100.0	99	100.0	134	100.0
직업	농업, 어업, 축산업 등	84	72.4	78	62.9	78	61.9	114	85.7
	전업주부	14	12.1	25	20.2	24	19.0	8	6.0
	자영업, 회사원(전문직 포함) 등	18	15.5	21	16.9	24	19.0	11	8.3
	전체	116	100.0	124	100.0	126	100.0	133	100.0
교육	0회	13	10.9	9	7.1	9	7.0	5	3.6
	1-2회	15	12.6	23	18.3	5	3.9	36	26.1
	3-5회	48	40.3	41	32.5	22	17.2	70	50.7
	6-10회	28	23.5	35	27.8	57	44.5	24	17.4
	10회 초과	15	12.6	18	14.3	35	27.3	3	2.2
	전체	119	100.0	126	100.0	128	100.0	138	100.0

리나라 농촌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2. 측정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자본 변수는 선행 연구(박용순·제상호, 2015; Liu *et al.*, 2014; Payne *et al.*, 2011; Park & Feiock, 2007)를 토대로 16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2개 영역 4개 차원으로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박용순·제상호(2015)는 ‘농촌관광개발에서 사회적 자본과 주민지각과의 관계’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을 2개 영역(구조적 사회적 자본, 인지적 사회적 자본), 4개 차원(제도적 구조, 연합적 네트워크, 관계적 거버넌스, 사회적 신뢰)으로 구성하여 논의하였는데, 타당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16개의 변수는 박용순·제상호(2015)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변수를 활용하여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 변수 구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연구에서의 타당도 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만을 진행하였다.

〈표 4〉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는데, 분석결과 요인적재치의 경우 16개 변수 모두 유의수준 5%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각의 요인에 대한 변수 구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4개 차원으로 구성된 모형적합도의 경우 절대적합도 지수와 수정적합도 지수를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GFI(기초적합지수)와 RMR(원소간 평균거리), CFI(비교적합지수)의 경우는 최적모형 기준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에 AGFI(수정적합지수), RMSEA(근사오차평균제곱근), 그리고 NFI(표준적합지수), TLI(비표준

적합지수)는 최적모형 기준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으나 최적모형 기준과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적 자본은 ‘제도적 구조’, ‘연합적 네트워크’, ‘관계적 거버넌스’, ‘사회적 신뢰’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4개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로서 요인별 항목 전체 상관관계, 항목 제거 시 Cronbach  $\alpha$ 값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관계적 거버넌스 요인에서 11번 변수(마을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를 제거할 경우 Cronbach의  $\alpha$ 값이 상승하는

〈표 4〉 사회적 자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 분	Estimate	Std. Estimate	S.E.	C.R.
1	← 제도적 구조	1.000	0.766		
2	← 제도적 구조	0.937	0.704	0.062	15.077 ***
3	← 제도적 구조	0.992	0.700	0.066	14.991 ***
4	← 제도적 구조	0.780	0.580	0.063	12.355 ***
5	← 연합적 네트워크	1.000	0.443		
6	← 연합적 네트워크	1.111	0.520	0.138	8.029 ***
7	← 연합적 네트워크	1.386	0.651	0.155	8.937 ***
8	← 연합적 네트워크	1.285	0.649	0.144	8.926 ***
9	← 관계적 거버넌스	1.000	0.775		
10	← 관계적 거버넌스	1.031	0.762	0.062	16.743 ***
11	← 관계적 거버넌스	0.815	0.554	0.068	11.965 ***
12	← 관계적 거버넌스	0.921	0.729	0.058	15.990 ***
13	← 사회적 신뢰	1.000	0.695		
14	← 사회적 신뢰	0.965	0.685	0.072	13.316 ***
15	← 사회적 신뢰	0.787	0.620	0.064	12.207 ***
16	← 사회적 신뢰	0.819	0.635	0.066	12.471 ***

\*\*\* p < .01

$\chi^2/df=3.692$ , GFI=.920, AGFI=.889, RMR=.038, RMSEA=.073, NFI=.886, TLI=.894, CFI=.914

〈표 5〉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구 분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Cronbach 알파
제도적 구조	1	12.27	4.151	0.664	0.776
	2	12.33	4.299	0.591	
	3	12.41	4.136	0.585	
	4	12.29	4.595	0.482	
연합적 네트워크	5	11.40	4.734	0.350	0.644
	6	11.37	4.699	0.406	
	7	11.63	4.482	0.470	
	8	11.41	4.681	0.477	
관계적 거버넌스	9	11.78	4.726	0.688	0.786
	10	11.86	4.611	0.674	
	11	12.42	5.021	0.469	
	12	11.90	5.176	0.563	
사회적 신뢰	13	12.21	4.003	0.532	0.756
	14	12.33	3.963	0.567	
	15	12.39	4.265	0.560	
	16	12.30	4.236	0.556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상승폭은 .001에 불과하여 제거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그 외 모든 요인에서 특정문항 제거 시 Cronbach의  $\alpha$ 값이 상승하는 요인은 없었고,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4개 요인 모두 Cronbach의  $\alpha$ 값이 0.6 이상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어 신뢰도 분석결과 각각의 요인별로 양호한 수준의 내적 합치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농촌마을 주민의 사회적 자본 인식형성 변화

본 연구는 지역사회 관광개발의 일환으로 농촌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4개 농촌마을 주민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형성을 시간적 흐름

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는 분산의 동질성 검정에 따라 Levene 통계량이 등분산 가정을 충족시키는 사회적 자본 요인은 LSD 분석을 수행하였고, 등분산 가정을 충족시키지 않는 사회적 자본 요인은 Dunnett T3 검정을 수행하였다. 분산의 동질성 검정 분석결과 4개 요인 중 2개 요인(연합적 네트워크, 사회적 신뢰)은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어 LSD 사후검정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2개 요인(제도적 구조, 관계적 거버넌스)은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Dunnett T3 검정을 수행하였다.

〈표 6〉은 농촌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4개 농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

한 인식형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이며, <그림 1>은 분석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6>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구 대상지인 4개 농촌마을 주민은 조사 전 기간에 걸쳐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수준이 평균(3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인 조사를 한 결과 마을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정도에는 시기별로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4개 요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은 1차 시

점(2015년 8월) 보다 4차 시점(2017년 2월)의 사회적 자본 형성 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이다. 즉, 4개 농촌마을 주민은 약 2년 간의 농촌관광과 같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이 상승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의 분석결과를 조사 시점별로 사회적 자본의 인식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1차 시점(2015.08월)에서는 사회적 신뢰(3.98), 제도적 구조(3.84), 관계적 거버넌스(3.82), 연합적 네트워크(3.58) 순으로 평균이 나타나고 있으나 2차, 3차 시점에 걸쳐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구조의 순위가 바뀌었고, 4차 시점에서는 제

<표 6> 마을주민의 사회적 자본 인식형성 변화 분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사후검정
제도적 구조	2015년 8월	138	3.84	0.79	14.617	3	4.872	11.661***
	2016년 2월	143	4.19	0.53				
	2016년 8월	110	4.29	0.63				
	2017년 2월	120	4.16	0.60				
연합적 네트워크	2015년 8월	138	3.58	0.73	14.919	3	4.973	11.432***
	2016년 2월	143	3.77	0.60				
	2016년 8월	110	4.01	0.65				
	2017년 2월	120	3.97	0.65				
관계적 거버넌스	2015년 8월	138	3.82	0.80	7.846	3	2.615	5.294**
	2016년 2월	143	3.98	0.62				
	2016년 8월	110	4.10	0.70				
	2017년 2월	120	4.13	0.68				
사회적 신뢰	2015년 8월	138	3.98	0.73	4.198	3	1.399	3.354*
	2016년 2월	143	4.11	0.61				
	2016년 8월	110	4.24	0.61				
	2017년 2월	120	4.12	0.62				

주1: \*\*\*p<.000, \*\*p<.001, \*p<.05

주2: Dunnet T3 사후검정에 의한 평균차이(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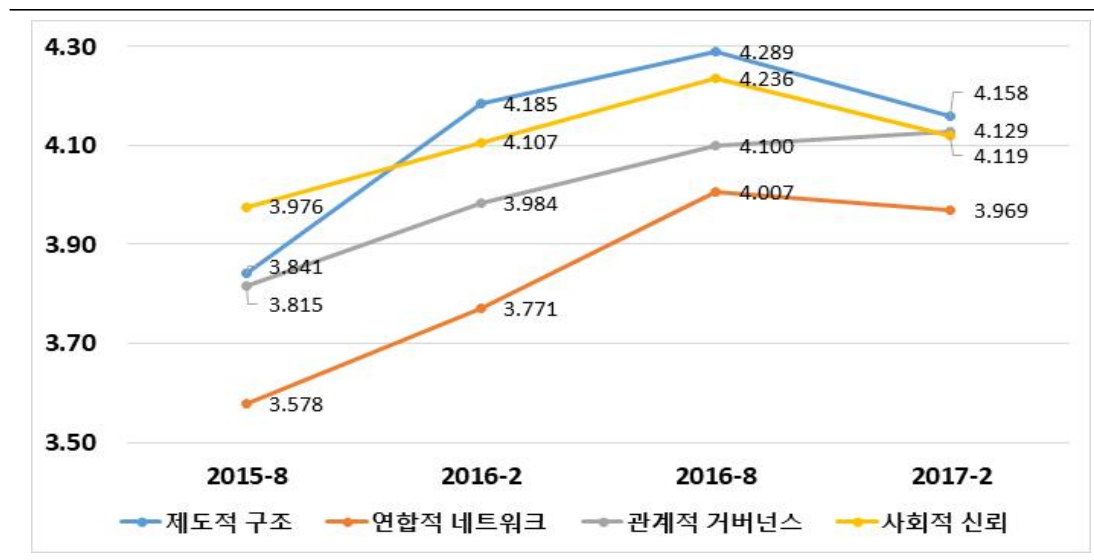
주3 : 사후검정 A = 2015년 8월, B = 2016년 2월, C = 2016년 8월, D = 2017년 2월

도적 구조(4.16), 관계적 거버넌스(4.13), 사회적 신뢰(4.12), 연합적 네트워크(3.97) 순으로 나타났다. 총 4차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제도적 구조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합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3개의 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농촌관광개발과 같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이 마을회의 등 주민 의사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주민으로서 갖춰야할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이해와 주민 상호간의 규범의 인식, 권한의 재분배 등이 강화되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박용순·고동완, 2018; Hwang & Stewart, 2017; Okazaki, 2008)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사결정구조의 합리적 운영, 마을주민의 권한강화와 일정부분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연합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박용순·제상호(2015)의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 농촌마을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박용순·제상호(2015)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 농촌마을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림 1〉은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4개 요인에 대해서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6개월 간격으로 증감추이를 파악한 결과이다. 각각의 요인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관계적 거버넌스는 1차 시점(2015.08)에서부터 4차 시점(2017.02)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외 3개 요인인 제도적 구조, 연합적 네트워크, 사회적 신뢰는 1차 시점에서 3차 시점(2016.08)까지는 증가하다가 4차 시점에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사회적 자본 요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초 시점(2015.08)에서 상승추세를 보이며 증가하였지만 증가세는 농촌관광개발 사업 실



〈그림 1〉 사회적 자본의 인식형성 변화 그래프

시 후 약 12개월까지 지속되고,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감소추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지역주민이 인식한 사회적 자본 인식정도는 1차 시점 → 2차 시점, 2차 시점 → 3차 시점, 3차 시점 → 4차 시점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되는 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서 최초 조사시점에서 2차 시점에 이르기까지 증가된 사회적 자본 인식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고 이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는데, 제도적 구조, 연합적 네트워크, 사회적 신뢰는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감소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형성을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을 살펴볼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유추해볼 수 있다. 사업초기 년도에는 지역사회 구성원인 마을주민들이 마을개발 사업추진에 대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의지와 참여도가 다소 느슨해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즉, 마을단위의 농촌마을 개발사업의 경우 선정된 이후 3년~5년의 기간 동안 마을 내 필요한 시설조성과 더불어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사업초기년도에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잘해보자는 마을주민의 의지가 반영되어 사회적 자본의 인식형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사업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시설조성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구성원의 사회적 자본을 함양하는 역량강화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초기년도에 비해 한 단계 성숙한 역량강화사업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기년도의 역량강화사업과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기존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을 답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기대심리의 저하와 피로감의 누적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의 경우 선행연구(박용순·제상호, 2015; Goodwin & Santilli, 2009)에서 고찰했듯이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회복과 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형성 등 사회적 자본과 관련 있는 구성원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도움을 주었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데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 관광개발의 일환으로 농촌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4개 농촌마을의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형성 정도를 6개월의 시차를 두고서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 추이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요인은 무엇이며, 마을주민의 인식형성과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마을단위의 농촌관광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도출하고 있다.

〈표 6〉과 〈그림 1〉에서처럼 4개 농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4차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4개요인(제도적 구조, 연합적 네트워크, 관계적 거버넌스, 사회적 신뢰)은 시기적으로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공히 지속적으로 상승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합적 네트워크의 경우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다

른 3개의 요인에 비해 초기상태(2015.08)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지만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2017.02)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외부 기관 및 전문가의 지속적인 마을주민과의 교류확대,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주민 간의 협력과 참여 등으로 인한 마을규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박용순·고동완, 2018; 박용순·제상호, 2015; Okazaki, 2008; Tolkach & King, 2015)의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행정, 전문가, 지역주민, 관광객 등)와의 인식을 공유하는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는 부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즉, 행정과의 관계나 참여하고 있는 마을주민의 인식의 공유, 외부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등은 지역사회 관광개발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적 네트워크 요인이 타 3개의 사회적 자본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McGehee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연합적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는 정치(행정)적 자원에서는 약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 결과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분석시점이 어느 시기인가에 따라서 중요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업초기에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록 연합적 네트워크가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다른 3개의 사회적 자본 구성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McGehee *et al.*(2010)가 연구한 결과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합적 네트워크를 제외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3개의 요인(제도적 구조, 관계적 거버넌스, 사회적 신뢰)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박용순,

2014b; 박용순·고동완, 2018; Goodwin & Santilli, 2009; Okazaki, 2008; Tolkach & King, 2015)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 관광개발에서는 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관계 형성, 의사결정구조의 합리적 운영,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중요하다고 한 결과와 부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4개 농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6개월의 간격을 두고서 2년에 걸쳐 시간적 흐름에 따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주민 인식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지역사회 관광개발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박용순, 2014b; 박용순·고동완, 2018; 박용순·제상호, 2015; 윤주·최승담, 2013; Hwang & Stewart, 2017; Okazaki, 2008; Sharpley & Telfer, 2002; Tolkach & King, 2015)에서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은 공히 지역사회 구성원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정도와 권한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량강화가 핵심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을 연구한 기존의 선행연구의 경우 특정한 시점에 한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인 지역주민(박용순, 2014b; 박용순·제상호, 2015; Hwang & Stewart, 2017; Okazaki, 2008)이나 지역리더(박용순·고동완, 2018; Sharpley & Telfer, 2002)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Tolkach & King, 2015)를 대상으로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편적으로 접근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한 시기에 1회성의 파편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경우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역량형성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역



량형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을 논의하고 있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량형성 정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시간적 흐름에 따른 중단적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구성원의 형성정도와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4개 요인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중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농촌마을 주민이 인지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진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4개 농촌마을 구성원의 인식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특정시점에서 일시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회귀선상으로 보면 4개의 사회적 자본 구성요인은 공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인에 대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이 인지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구성원들은 4개요인 공히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인식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소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관광 개발사업의 역량강화가 사회적 자본의 4개 구성요인의 변화추이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지역사회 관광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측면으로는 농촌관광개발과 같은 지역사회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농촌마을 주민의 역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과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4개 요인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정도 역시 다소나마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사회 관광개발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형성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어떠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주어야 하는 것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

지적 사회적 자본인 사회적 신뢰와 관계적 거버넌스의 경우 사업초기부터 종료 시기까지 완만한 상승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구조적 사회적 자본인 제도적 구조와 연합적 네트워크의 경우 상승추이가 지적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2개의 요인에 비해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개선, 행정적 지원과 외부 네트워크 형성 등과 같은 부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의 정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 3차 조사까지는 사회적 자본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4차 조사에서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다. 첫째, 농촌지역개발(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선정되기 최소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조직구성, 전문가 교육, 주민 회의 등이 이루어지며, 이는 선정된 이후에도 사업이 종료될 때 최소 3~5년간 지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강화사업은 사업에 선정되기 이전이나 선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의 역량강화사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공동체 활성화라는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년차별로 진행된 역량강화사업으로 인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자본은 년차에 따라서 변화된 의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진행으로 인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피로감의 누적에 따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회적 자본에 대한 주민역량을 정확히 진단한 후에 그에 부합하는 맞춤형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업에 선정되기 전·후 년도에는 주민 스스로 '한번 해보자'는 의지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여 주

민 간의 단합과 참여가 잘 이루어졌지만 3년의 사업기간 중 50%가 경과된 시점에서도 경제적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사업에 대한 다소 회의감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지연되는 측면도 있지만,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구성원인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으로서 초기년도에서처럼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심원섭, 2017; Goodwin & Santilli, 2009; Wearing *et al.*, 2010)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의 내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농촌관광을 추진 중인 4개 농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다수의 농촌마을이 농촌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농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실시한 본 연구의 경우 표본선정에 있어서 객관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4개 농촌마을의 구성원인 마을주민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추이를 장기간에 걸쳐 살펴보고 있고,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4개 요인에 대한 마을주민의 인식의 정도 또한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본 연구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다만 본 연구가 농촌관광개발을 추진하는 농촌마을의 전반적인 사회적 자본을 논의하다 보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나타나듯이 마을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학력, 직업,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논의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마을별 특성과 농촌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한 경력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

별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자본 인식형성에 대한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연구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동완(2009).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촌관광개발 모형. 『관광학연구』, 33(5), 411-431.
- 김균목 · 고동완(2012). 우리나라 관광분야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과 방향. 『관광학연구』, 36(1), 31-50.
- 류시영 · 김혜영(2012).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주민 인식과 지지도. 『Tourism Research』, 37, 249-266.
- 박용순(2014a). 커뮤니티 통합과 주민지각과의 관계. 『관광학연구』, 28(6), 181-202.
- \_\_\_\_\_ (2014b).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통합과의 관계. 『관광학연구』, 38(5), 207-228.
- 박용순 · 고동완(2010). 농촌관광마을에서 사회적 자본이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4(8), 33-55.
- \_\_\_\_\_ (2018). 농촌관광개발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 『관광학연구』, 42(3), 33-52. <http://dx.doi.org/10.17086/JTS.2018.42.3.33.52>
- 빅용순 · 제상호(2015). 농촌관광개발에서 사회적 자본과 주민지각과의 관계. 『농촌계획』, 21(3), 85-99. <http://dx.doi.org/10.7851/ksrp.2015.21.3.085>
- 손은호 · 박덕병(2009). 농촌관광개발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농어촌관광연구』, 16(3), 63-82.
- 심원섭(2017).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 본 내생적 지역관광발전의 과제와 정책적 함의. 『관광학연구』, 41(6), 101-125. <http://dx.doi.org/10.17086/JTS.2017.41.6.101.125>
- 윤유식(2009). 농촌관광마을 사회자본에 따른 관광개발태도 및 관광개발 지지도에 관한 연구.

- 『농촌관광연구』, 16(3), 41-61.
- 윤주 · 최승담(2013).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 관광 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7(4), 77-95.
- 장한별 · 황두현 · 지상현(2017). 관광을 통한 전통 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자본의 변화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52(2), 225-243.
- 한승훈 · 신동주(2017). 지역애착, 개발만족 그리고 개발 지지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31(5), 23-35.
-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216-224.
- Bourdieu, P. (1986). The force of law: Toward a sociology of the juridical field. *Hastings Law Journal*, 38, 805-853.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_\_\_\_\_ (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Friedmann, J. (1992). *Empowerment: the politics of alternative development*. Blackwell.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Goodwin, H., & Santilli, R. (2009). Community-based tourism: A success. *ICRT Occasional paper*, 11, 1-37.
- Grootaert, C., & Van Bastelaer, T. (2001). *Understanding and measuring social capital: A synthesis of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social capital initiative (Vol. 24)*. World Bank, Social Development Family,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 Harpham, T., Grant, E., & Thomas, E. (2002). Measuring social capital within health surveys: key issues. *Health Policy and Planning*, 17(1), 106-111.
- Hwang, D., & Stewart, W. P. (2017). Social capital and collective action in rural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56(1), 81-93.
- Kim, M. J., Lee, C. K., & Bonn, M. (2016).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and altruism on seniors' revisit intention to social network sites for tourism-related purposes. *Tourism management*, 53, 96-107.
- Lea, J.(2006). *Tourism and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Routledge.
- Liu, C. H. (2017). The relationships among intellectual capital, social capital, and performance-The moderating role of business ties and environmental uncertainty. *Tourism Management*, 61, 553-561.
- Liu, J., Qu, H., Huang, D., Chen, G., Yue, X., Zhao, X., & Liang, Z. (2014).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encouraging residents' pro-environmental behaviors in community-based ecotourism. *Tourism Management*, 41, 190-201.
- McGehee, N. G., Lee, S., O'Bannon, T. L., & Perdue, R. R. (2010). Tourism-related social capital and its relationship with other forms of capital: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Travel Research*, 49(4), 486-500.
- Margules, C. R., & Pressey, R. L. (2000). Systematic conservation planning. *Nature*, 405, 243-253.
- Mitchell, R. E., & Reid, D. G. (2001). Community integration: Island tourism in Peru.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1), 113-139.
- Okazaki, E. (2008). A community-based tourism model: Its conception and use.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6(5), 511-529.
- Park, H. J., & Feiock, R. C. (2007). Institutional collective action, social capital and re-

- gional development partnership.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11(2): 57-69
- Payne, G. T., Moore, C. B., Griffis, S. E., and Autry, C. W. (2011). Multi-leve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social capital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37(2), 491-520.
-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The American Prospect*, 4(13), 35-42.
- \_\_\_\_\_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Putnam, R. D., Leonardi, R., & Nanetti, R. Y. (1994).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driguez-Giron, S., & Vanneste, D. (2018). Social capital at the tourist destination level: Determining the dimensions to assess and improve collective action in tourism. *Tourist Studies*, 1-20, <https://doi.org/10.1177/1468797618790109>
- Schumpeter, E. F. (1973). *Small is beautiful: A study of the economy as if people mattered*. Blond and Biggs, London.
- Selin, S., & Chavez, D. (1995). Developing an evolutionary tourism partnership model. *Annals of Tourism Research*, 22(4), 844-856.
- Sharpley, R., & Telfer, D. J. (2002). *Tourism and development: Concepts and issues*. Channel View Publication.
- Stone, L. S., & Stone, T. M. (2011). Community-based tourism enterprises: challenges and prospects for community participation; Khama Rhino Sanctuary Trust, Botswana.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9(1), 97-114.
- Tolkach, D., & King, B. (2015). Strengthening community-based tourism in a new re-  
source-based island nation: Why and how?. *Tourism Management*, 48, 386-398.
- Wearing, S. L., Wearing, M., & McDonald, M. (2010). Understanding local power and interactional processes in sustainable tourism: Exploring village-tour operator relations on the Kokoda Track, Papua New Guinea.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8(1), 61-76.
- Zhou, L., Chan, E., & Song, H. (2017). Social capital and entrepreneurial mobility in early-stage tourism development: A case from rural China. *Tourism Management*, 63, 338-350.

2018년 9월 29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8년 10월 24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8년 10월 26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룩